

소설론

문학 원론 소설론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수능 국어 전문가 배인호 선생님 소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 복수전공
 수능 모의고사 상위 0.01~0.3% (수험생 시절), 지구과학경시대회 / 지리올림피아드 입상
 2009년 공신 공부법 강의 1위 (질문게시판 점유율 70%)
 2010년 KBS 공신드라마 멘토
 2010년 kt에듀 1위 (최연소 최단기 수강생 5만명, 매출 5억 달성)
 2011년 비타에듀 국어 1위 (비타에듀 최연소 최단기 수강생 1만, 매출 1억 돌파)
 2017년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여민동락' 선정 (inoedu.co.kr 온라인 이노에듀)
 성공강사 강연회 (훈장마을,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공부법 강연회 (용인시, 울산 북구, 안산시, 전라남도 교육청, 영신, 백석, 경일고)
 과외 17년차
 인강 9년차

- 언론이 본 배인호 선생님
-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국민일보, 연합뉴스, 헤럴드 등
 - 서울대 발전 기금 기부 스토리 인터뷰
 - KBS 드라마 '공부의 신' 멘토
 - SBS 이성미의 라디오 쇼 출연
 - SBS 김소원의 라디오 전담대 출연
 - Mnet 김수로의 명문대 특별반 엠블랙 멘토
 - SBS 스타킹 공부법 강사 섭외 요청
 - 삼성 스마트 러닝 허브 공부법 강사 섭외 요청
 - KBS 아침 마당 섭외 요청

수업문의 : 010-8388-5403 (연구실 대표번호)
 010-8388-5420 / soohum@hanmail.net (배인호 선생님 직통)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했고,
 반 34등에서 2년 만에 전국 70등이 된 수능국어 전문가 배인호 선생님입니다.

2년간 131프로젝트 신청해주신 학생분들이 6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131 프로젝트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온라인의 한계를 넘기 쉽지 않아 많은 분들이 프로젝트를 지속하지 못한 점이 아쉬워,

올해부터는 오프라인 단과/과외, 그리고 온라인 유료멘토링 학생들 중심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무료 131프로젝트는 아마 1~2차례 정도만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6평 이후, 9평 전후 이렇게 1~2번이 될 것 같습니다.

배인호의 수능국어는 평가원 출제교수님들이 의도하고 원하는 문제 접근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출제교수님들의 의도대로 읽고, 제대로 된 문제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수업이 진행됩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교수님들께 직접 들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제 수능 강의 16년을 갈아 넣었습니다. 누구보다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집중해 읽기 위해 본 문서는 출력을 꼭 해서 차근 차근 정독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소름끼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시론, 고전시가론을 학습한 전체를 바탕으로 봅니다.

따라서, 조금은 수준이 있는 내용이 되는 점, 이해 바랍니다.

우리는 수능 소설 문제 하면, 그냥 별 생각없이 읽거나, 적당히 인물 잡으면서, 모든 내용을 전부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세부 상세 내용을 분석적으로 보며, 특히 개념어, 전개방식 파악을 목적으로 학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이 출제자들이 원하는,
목표하는 방법일까요?

무엇보다

현행 수능에 최적화된 접근법일까요?

평가원 출제교수님들께서 ‘극혐’하는 문학 사조가 있습니다.

바로 신비평 문학사조이고, 이것은 후에 구조주의로 이어지는데, 이 당시에 미국등으로 유학을 가신 분들이 한국에 들어와 80~90s 우리나라 교육 전반, 특히, 국어국문학, 국어교육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신비평>

1930~50s

<구조주의>

1950~70s

문제는, 신비평, 구조주의에 의한 문학 분석은,

철저하게 작품에 ‘만’ 근거하여,

외부 요소를 ‘배제’한 해석을 합니다.

즉, ‘내재론’ 중심의 ‘지문에 근거한 해석’을 원합니다.

우리가 수능에 대해 전형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접근법.

바로...

“

지문에 모든 정답의 근거가 다 있다.

문학 작품, 있는 그대로 읽어라.

”

등의 해석법이죠.

이는, 1994~2013학년도, 초기 수능, 즉, 언어영역이던 시절, “수능은 지식이나 암기력 측정시험이 아니라, 능력 측정시험이다. 그래서 배경지식도 필요 없고,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한다는 측면에서, 모든 정답의 근거가 지문에 있다. 따라서, 지문에 근거해서 풀어라.” 등의, 지금의 출제 원칙에 어긋난 내용이 일부 스타강사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며, 이제는 통념이 되어, 그에 대한 명백한, 평가원, 국어교육학계의 논문, 공문서등을 근거로 잘못됨을 주장 해도 이상한 소리로 들리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과거 ‘언어영역’은 그런 경향 분명히 있고, 그래서 개념적으로나, 분석적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 답 고르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현행 ‘국어영역’ 수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예전 언어영역 접근법을 배워 고수하는 수험생은 25분에 15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문학 파트에서 더 많은 시간을 쓰거나, 정답률 역시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합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평가원의 수능에 대한 생각을 바라보겠습니다.

“

〈소설〉

...소설은 **현실의 삶**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소설 교육〉

...삶과 현실에 대한 심화된 체험...

...문학적 지식을 많이 아는 것 보다는 그것을 이용하여 작품을 올바로 이해하고 감상하여 그것을 내면화하는데 까지 나가야 한다...

...작품 속 삶이 자신의 생체험으로 전환되어 **가치관을 변화시키며, 인간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체험**을 하도록 돕는다...

”

〈최병우〉 『국어교육학 사전 428~432,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수능 국어의 특징〉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 1. 주제 : 서사, 줄거리
 -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다음 문제를 평소대로 풀어봅시다.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24. 뜬막 안

자리에 누운 송 영감. 나직히 신음한다. 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옥 수 : 약 잡수셔야죠.....

송 영감 : (눈을 뜨며) 음!

옥수 일어나려는 송 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 준다. 약을 마시는 송 영감.

송 영감 : (걱정스럽게) 가만 어떻게 됐지?

옥 수 : ㉠저녁때 독을 끌어내야죠.....

송 영감 : 음!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자기에 가 있다. 햇별을 받아 더욱 고담한 백자기의 형체. -DIS-

125. 가마 앞(황혼)

마당에 놓인 중옹, 통옹, 반옹 등 갖가지 독들. 그런데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다. 비틀어진 독, 밑이 내려앉은 독, 거미줄처럼 굵이 간 독들.

웁손이, 석현이 걱정스럽게 본다. 그러자 송 영감이 비실거리며 달려온다. 독을 하나하나 살핀다.

송 영감 : (혼잣말처럼) 이럴 수가.....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절망) 아냐! 이걸 독이 아냐! (계속 보며) 이것두! 이것두..... (비통하게) 이걸 흠덩이다!

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웁손이 : ㉡아니 어보게! 무슨 짓인가!

송 영감 : 비켰! (뿌리친다)

나가떨어지는 웁손이

석 현 : ㉢(잡으며) 안됩니다! 성한 것두 있어요!

송 영감 : 닥쳤! 이걸 부정을 탔어! 모두 쳐부셔야 했!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다.

㉤* 뚜왕! 뚜왕!

박살 나는 독들.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

웁손이 : (비통 혼잣말같이) 자네 환장했구먼!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행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 뚜왕! 뚜왕!

송 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풀썩 주저앉고 만다. 목구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 나온다.

㉦ 뚜왕! 뚜왕! 뚜왕!

옥수 귀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 가는 박살 나는 독 소리. 송 영감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해 운다. 석양에 물든 하늘.

-DIS-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

*DIS: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위로 다음 화면이 나타남.

*㉦: 효과음.

(나)

차차 송 영감의 숨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치*로 두드려 울릴 때, 피딱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웁손이도 흙 몇 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밖을 내다보던 송 영감은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독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 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어 깨워서였다. 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거냐고 하니 애가,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을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줌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다음날 아침에는 송 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어 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은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

송 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흙

이기던 웅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 영감에게 내년에 마저 지어 줏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 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조마구와 부채마치:웅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한 쌍의 도구.

*전:웅기 등 물건의 위쪽 가장자리가 조금 넓적하게 된 부분.

21. <보기>의 관점에서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인(匠人)’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 ① ‘아내! 이걸 독이 아내!’는 ㉠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며,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 ㉡를 향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 준다.
- ② ‘흙덩이다!’는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의 동기를 드러내고, ‘흙 몇 덩이’는 ㉡에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를 지칭한다.
- ③ ‘매섭게 보다가 웅하니 간다’는 ㉠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고, ‘조수의 환영’은 ㉡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드러낸다.
- ④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 ⑤ ㉠의 행동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하는’ 것은 미적 가치 추구의 어려움을, ㉡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보다는 독에 가 있음을 알려 준다.
- ② ㉡:‘웅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을 오만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 준다.
- ③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 영감’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 준다.
- ④ ㉣:‘송 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 내지 못하는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애’가 언제나처럼 ‘웅손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2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에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③ 새로운 인물이 다른 인물의 발화를 통해 등장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전환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 거리와 결부하여 서술함으로써,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①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 ②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⑤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여러분이 평소 기출 분석하던 대로, 21번, 23번, 24번을 분석해봅시다. 질문드리겠습니다.

Q1. 21번. 만약 4번이 틀렸다면, 이유가 명백하고, 논리적으로 100% 확신하여 그 근거를 주장하실 수 있나요?

Q2. 23번. 4번 선지를 골랐다면, 왜 1번 선지는 틀려야 하나요? 1번 선지가 틀렸다는 100% 확실한 논리적 근거를 지문에서 찾으실 수 있나요?

Q3. 24번. 5번이 아닌 선지를 정답으로 골랐다면, 5번 선지는 정말로 맞는 선지인가요? 100% 확실히?

다시 위의 질문 세 가지에 정확한 답변을 위해 지문을 분석해봅시다.

2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
 가 흔들려 깨워져서였다. 훌쩍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현실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거냐고 하니 애가,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주더라
 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
 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는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
 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밤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
 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Q2. 23번. 4번 선지를 골랐다면, 왜 1번 선지는 틀려야 하
 나요? 1번 선지가 틀렸다는 100% 확실한 논리적 근거를 지문
 에서 찾으실 수 있나요?

보통, 우리는 개념을 적용해 문학 작품을 분석합니다.

우선 위의 세모 표현들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대사, 행동, 장면, 장면이 연쇄되고 있고,

-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
 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가능합니다.

또한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즉, 아이와 아버지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
 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1번 선지는 정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 ④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 선지는요?

직접 제시 VS 간접 제시

직접 서술 VS 간접 서술

직접 인용 VS 간접 인용

이 차이 명확히 알고 계신가요?

실전에서 순간적으로 흔들리지 않을까요?

시간안에, 정확히 푸는데 있어서...

개념을 비벼서, 근거 찾아 푸는 것이 정말 최선인가요?

아니, 시간이 충분하다 한들,

위의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개념을 적용해 분석해 보는 접근법이 과연 가능한 한가요?

정답 2개 아닌가요?

도. 대. 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전제,

수능 국어 시험에 대한 전제,

모든 정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다.

문학은 개념어 분석 문제이다

파위의 접근법이

틀렸기 때문이죠.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新수능국어의 특징>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 1. 주제 : 서사, 줄거리
 -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위의 접근 틀에 따라 분석해보겠습니다.

(가)

124. 뜬막 안

자리에 누운 송 영감 나직히 신음한다. 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성격: 환자 성격: 영감 보살핌

인물에 파란색 도그라미

평가원이 집중하는 정보에 밑줄을 칩니다.

인물 = 사람 이름

성격 = 인물의 전형을 결정하는 요소(신분, 직업, 나이 등등)

'성격'은 원래 CHARACTER를 번역한 말로, '인물'과 같은 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능 국어 기출 문제 접근에서는 위와 같이 정보 처리합니다.

목 수 : 약 잡수셔야죠.....

송 영감 : (눈을 뜨며) 음?!

옥수 일어나려는 송 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 준다. 약을 마시는 송 영감.

송 영감 : (걱정스럽게) 가만 어떻게 됐지?

옥 수 : ㉠저녁때 독을 끌어내야죠..... 송 영감의 내면심리

송 영감 : 음!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자기해 가 있다.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한 백자기의 형체. DIS-

소재

125. 가마 앞(황혼)

마당에 놓인 중옹, 통옹, 반옹 등 갖가지 독들. 그런데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다. 비틀어진 독, 밑이 내려앉은 독, 거미줄처럼 금이 간 독들.

송영감 (걱정스럽게) = 내면심리

건강이 안 좋음에도, 독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아내인 옥수는 송 영감을 간호하는 것이 우선이고,

영감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소재인 '독'에 주목을 시킵니다.

내면심리

웁손이, 석현이 걱정스럽게 본다. 그러자 송 영감이 비실거리며 달려온다. 독을 하나하나 살핀다.

송 영감 : (혼잣말처럼) 이럴 수가.....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는데.....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절망) 아냐! 이걸 독이 아냐! (계속 보며) 이것두! 이것두..... (비통하게) 이걸 흠덩이다!

송 영감의 내면심리

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웁손이 : ㉡아니 여보게! 무슨 짓인가! 갈등? 나니 만류

송 영감 : 비켓! (뿌리친다)

주변 인물들이 걱정스럽게 볼 정도로, 독은 엉망진창입니다. 송영감은 절망하고, 비통합니다.

독을 깨려는 그를 웁손이가 말립니다. 지엽적으로 보면 갈등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뒷 내용을 보면, 웁손이는 송 영감을 공감하고 있고, 따라서, 이는 갈등이 아니라, 송 영감의 노력과 고생을 알기에, 송 영감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만류하려는 것으로 해석 해야 합니다.

나가떨어지는 웅손이
석현: @**(잡으며)** 안됩니다! **성한** **것** **있어**요!
승영: 다했! 이진 **부정**을 **탓**어! 모두 **처부**서야 **했**!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다.

하지만 석현이와의 갈등은 조금 다릅니다. 기준 차이 때문에 생긴 갈등이고, 뒤의 내용을 보면, 석현이와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암시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뚜왕!** **뚜왕!**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
 박살 나는 독들.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출제자가 어떤 정보를 중요하게, 그 중요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출제자 관점에서는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

입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

즉,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가원의 단호한 의지가 보입니다.

“
 지문에 모든 정답의 근거가 다 있다?
 문학 작품, 있는 그대로 읽어라?
 개념어 학습이 중요하다?
 개념어 정리 후 그것을 작품에 적용 해석하라?
 선지 ox 판단?
 ”

저도 불과 3년전 까지의 수능에서는 위와 같은 접근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
 신비평에 의한 작품 분석 접근법을 배제한다
 ”

즉, 개념어 중심의 문제 접근을 막겠다는 의지.
 개념어 중심으로 접근할 때의 함정이 보입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보이시나요? 평가원에게는 개념어 : 시각적 묘사
 가 전혀 중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면 함정에 빠집니다.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新수능국어의 특징>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 1. 주제 : 서사, 줄거리
-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즉, 정보처리 과정에서, 해당 부분이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
입을 파악할 수 있었느냐의 문제이죠.

이렇게, 우리가 평가원의 규격에 맞게 정보처리 하지 않으면
생기는 심각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웁손이: (비통 혼잣말같이) 자네 환장했구먼!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웅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
를 바라본다.

웁손이와의 갈등은, 사실, 송영감에 대한 걱정과 공감입음

석현이와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음을

그리고 으잉? 옥수는 갑자기?? 왜???

사실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원문을 찾아봤고...

나중에 썰 풀게요...

㉠ 뚜왕! 뚜왕!

송 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풀썩 주저앉고 만다. 목구
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 나온다.

㉡ 뚜왕! 뚜왕! 뚜왕!

옥수 귀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 가는 박살 나는 독 소리. 송
영감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해 운다. 석양에 물든 하늘.

-DIS-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

*DIS: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위로 다음 화면이 나타남.

*㉠: 효과음.

내 작품은 이렇게 끝났고.

나중에 썰 풀게요...

첫부분 인사배 잡기!

(나)

송영감의 능력한계

차차 송 영감의 숨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
마구와 부채마치*로 두드려 울릴 때, 퍼뜩 눈앞에 아내와 조
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
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
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
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내적
갈등
어려운
상황
장면

숨씨에 틈이 생겼다 = 능력의 한계라고 해석 가능하고

환영 = 내적 갈등, 심적 괴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네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웁
손이도 흙 몇 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 쫓그리고 앉
아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
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아이의
내면심리
추측

다시 일어나 보니, 아이가 힘들어 보이고, 그 아이아 내면 심
리를 송 영감 입장에서 추측하는데...

이상하네요?

아이가 이렇게 있으면 정상적인 아버지면 어떻게 해야하죠?

아이를 챙겨야죠.

그런데 뭐하나요?? 또 독만 짓고 있네요?

박을 내다보던 송 영감은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독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
우 한 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내면심리
어려운
상황

송영감의 내면심리 내적갈등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흔들어 깨워시켰다** **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간다고 하니** **애가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거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홀쩍홀쩍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는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좁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자 이제 문제의 부분입니다. 추후 문제 풀이 하며 설명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송 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어 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은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빈쭈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

송 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흠이기던 똥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 영감에게 내년에 마저 지어 찻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 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의지. 열정
예술가로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조마구와 부채마치:옹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한 쌍의 도구.
*잔:옹기 등 물건의 위쪽 가장자리가 조금 넓적하게 된 부분.

끝까지 읽어보니 어떤가요?
송영감은 늙고, 노쇠하고, 심지어 실력도 떨어지고...
심지어 아이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독을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걱정해 챙겨주는 아이한테 화를 내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을 다시 짓습니다.

즉,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독을 짓습니다. 즉, 좌절에도 불구하고 예술가의 혼, 극복의지라고 주제를 읽을 수 있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수능 국어 전문가.

그렇다면 아래의 정답은?
2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① 아이와의 갈등을 보여주고 싶어 작가가 쓴 부분인가요?
- ④ 자기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아이한테 화를 낼 정도로 멘탈이 터져버릴 때까지 예술 혼을 불태우는 송영감의 내면심리를 묘사하기 위함인가요?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선지가 됩니다.

즉, 우리는 1,2,3,4선지 하나 하나 보며, 나름의 판단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제발, 우리가 평가원의 정보 처리 규격에 따라 정보 처리를 했다면, 지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규격에 맞지 않게 처리 했으니,
당연히 판단이 안 되고,
그러니 자꾸 지문으로 가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출제 의도, 출제자가 처리한 규격에 맞지 않는 정보 처리를 했고,
결국 선지 판단에 개념을 적용하고,
논리를 따지다 틀린 선지를 고르는 불상사,
답을 고르지 못하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보다는 ~~독이~~가 있음을 알려 준다.
 - ② ㉢:‘똥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을 ~~오만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 준다.
- 아까 봤다시피, 옥수는 송영감 걱정을 하기 때문에, 송 영감을 먼저 보살피죠. **성격**
- 똥손이는 **공감(내면심리)**했습니다!

배인호 선생님의 수능국어 '소셜론'

③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송 영감'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 준다.

정확한 **갈등의 원인** 보이네요.

④ ㉠'송 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 내지 못하는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역시 **내면심리, 내적갈등**

⑤ ㉠'에'가 언제나처럼 '행손이'가 ~~부머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역시 **내면심리**

위와 같이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정보처리를 정확히 했다면 답을 고르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21. <보기>의 관점에서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인(匠人)'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작품 줄거리와 주로 (가)에서 보여진 외적갈등, (나)에서 보여진 내적갈등, 그리고 (가)에서 보여진 절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서 보여진 영감의 성격을 정리해 생각하면, 주제는...

절망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술가적 집념으로 극복하려는 송영감의 의지

위와 같이 평가원이 원하는 대로 정보처리를 정확히 했다면 답을 고르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① '아내 이긴 독이 아내!'는 ㉠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며,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 ㉡를 향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 준다.

주제 잡았으면 무리 없습니다.

② '흙덩이다!'는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의 **동기**를 드러내고, '흙 몇 덩이'는 ㉡에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를 지칭한다.

소재와 내면심리를 잡았으면 역시 좋음.

③ '매섭게 보다가 행하니 간다'는 ㉠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고, '조수의 환영'은 ㉡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드러낸다.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잡으면 됩니다.

④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 년래 없이 솥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가) 내면심리 : 절망

(나) 첫부분 : 능력 한계

있는 것 같네요!

⑤ ㉠의 행동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하는' 것은 미적 **가치 추구의 어려움**을, ㉡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다.

맞습니다...

?

??

???

정답이 없네요???

뭐가 문제죠?

여러분...

제발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로

사후적으로 정답을 알고 끼워 맞추기로 답 골라놓고,

그게 맞다고 착각하면,

수능날 참교육 당합니다...

풀이 과정이 틀렸는데 우연하게 답만 맞으면 뭐할거예요.

왜 정답이 4번 선지가 되어야 하나요?

여러분의 평소 풀이, 시중 해설지, 접근으로는 절대 100% 완벽한 답변 못 합니다.

하지만, 평가원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너희가 주제를 제대로 파악했느냐.

질망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술가적 집념으로 극복하려는 송영감의 의지

④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 년래 없이 솟대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즉, 위의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영감은 극복의지를 보였다'
 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즉, 주제에 위배되지?
 좌절까지만, 능력의 한계 까지만 이야기 하면...
 출제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절반,
 혹은 오히려 반대 의미가 전달됩니다.
 좌절과 능력의 한계는
 극복의지를 빛나게 하려고 출제자가 세팅한 부분이지,
 작품의 주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것이 바로 출제자가 생각한 답.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풀던대로,
 개념 따지고,
 내용 하나 하나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단어, 내용, 장면, 하나 하나, 개념과 연결지어 숨은 그림찾기,
 퍼즐 맞추기로 선지 끼워맞춰서 접근...

더 이상 안 됩니다.

평가원이 원하는 정보처리 규격
 반복하고
 이해하고
 암기해
 적용합니다.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新수능국어의 특징>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1. 주제 : 서사, 줄거리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여담으로...

(가)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웅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웁손이와의 갈등은, 사실, 송영감에 대한 걱정과 공감임을

석현이와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음을

그리고 으잉? 옥수는 갑자기?? 왜???

사실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데...

(나)

차차 송 영감의 숨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부채마치*로 두드려 올릴 때, 퍼뜩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깃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쓰러지듯이 깃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헉... 설마 바람 나서 나갔나???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원문을 찾아봤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원문을 찾아봤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원문을 찾아봤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결과는 제외되었습니다. 만 19세 이상의 사용자는 성인인증을 통해 모든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 성인인증

하... 뭐지?

19금????

추후 이 부분은 유튜브에서 썰을 풀어드릴게요.

구글 검색해봐도...



불길속에 사랑과 집념을 ... 구어내는 욕정의 충격예술???

욕정???

[명사] 1. 한순간의 충동으로 일어나는 욕심. 2. 이성에 대한 육체적 욕망.



할말하않... 유튜브에서 뵈어욘!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21~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124. 뜬막 안

자리에 누운 송 영감 나직히 신음한다. 처가 와서 약그릇을 놓는다. 성격: 환자 성격: 영감 보살핌

옥 수 : 약 잡수셔야죠.....

송 영감 : (눈을 뜨며) 음!

옥수 일어나려는 송 영감을 부축하며 약그릇을 대 준다. 약을 마시는 송 영감.

송 영감의 내면심리

송 영감 : (걱정스럽게) 가만 어떻게 됐지?

옥 수 : ㉠저녁때 독을 끌어내야죠.....

송 영감 : 음!

그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백자기에 가 있다.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한 백자기의 형체. DIS-

소재

125. 가마 앞(황혼)

마당에 놓인 중옹, 통옹, 반옹 등 갖가지 독들. 그런데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다. 비틀어진 독, 밑이 내려앉은 독, 거미줄처럼 굵이 간 독들. 내면심리

웁손이, 석현이 걱정스럽게 본다. 그러자 송 영감이 비실거리며 달려온다. 독을 하나하나 살핀다.

송 영감 : (혼잣말처럼) 이럴 수가..... 지금까지 이런 일 없었는데..... 이게 내가 만든 독이야! (절망) 아내! 이진 독이 아내! (계속 보며) 이것두! 이것두..... (비통하게) 이진 흠덩이다!

송 영감의 내면심리

가마 앞에 달려가 망치를 든다.

웁손이 : ㉡아니 어보게! 무슨 짓인가! 만류

송 영감 : 비켓! (뿌리친다)

나가떨어지는 웁손이

갈등 원인 : 기준 차이

석 현 : ㉢(잡으며) 안됩니다! 성한 것두 있어요!

송 영감 : 닥쳐! 이진 부정불 탕어! 모두 쳐부셔야 했!

밀어붙이며 달려가 미친 사람처럼 ㉣독을 박살 내기 시작한다.

㉤* 뚜왕! 뚜왕!

옥수의 내면심리 묘사

박살 나는 독들.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옥수

웁손이 : (비통 혼잣말같이) 자네 환장했구먼!

석현이 매섭게 보다가 행하니 간다. 옥수 몹시 불안하게 그를 바라본다.

㉥* 뚜왕! 뚜왕!

송 영감 그만 숨이 턱에 닿는다. 풀썩 주저앉고 만다. 목구멍에서 차츰 오열이 새어 나온다.

㉦* 뚜왕! 뚜왕! 뚜왕!

옥수 귀엔 언제까지나 확대되어 가는 박살 나는 독 소리. 송 영감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해 운다. 석양에 물든 하늘.

-DIS-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

*DIS: 화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위로 다음 화면이 나타남.

*㉦: 효과음.

첫부분 인사.배 잡기!

능력한계

(나)

차차 송 영감의 숨씨에는 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구나 조마구와 추재마치*로 두드려 올릴 때, 퍼뜩 눈앞에 아내와 조수의 환영이 떠오르면 짓던 독을 때리는지 아내와 조수를 때리는지 분간 못 하는 새, 독이 그만 얇게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 그리고 전*을 잡는 손이 떨려, 가뜩이나 제일 힘든 마무리의 전이 잘 잡히지를 않았다. 열 때문도 있었다. 송 영감은 ㉧쓰러지듯이 짓던 독 옆에 눕고 말았다.

내적 갈등

어려운 상황

송 영감이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녁때가 기울어서였다. 뺨손이도 흙 몇 덩이를 이겨 놓고 가고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바깥 저녁 그늘 속에 ㉨애가 ㉩남쪽 장길을 향해 쫓그리고 앉고 있었다. 어머니를 기다리는 거리라. 언제나처럼 장 보러 간 어머니가 언제나처럼 저녁때면 조수에게 장감을 지워 가지고 돌아올 줄로만 아직 아는가 보다.

아이의 내면심리 추측

밖을 내다보던 송 영감은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 다시 ㉪독 짓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으나, 이번에는 겨우 한 개를 짓고는 다시 쓰러지듯이 눕고 말았다.

내면심리 어려운 상황

다음에 송 영감이 정신이 든 것은 아주 어두운 속에서 애가 혼들어 깨워져서였다. 울먹이던 애가 깨나는 아버지를 보고 그제야 안심된 듯이 저쪽에서 밥그릇을 가져다 아버지 앞에 놓았다. 웬 기냐고 하니 애가, ㉫영두나뭇집 할머니가 주더라고 한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누가 커랑질해 오라더냐고 밥그릇을 밀쳐놓자 애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송 영감은 아침에 어제의 저녁밥 남은 것을 조금 뜨는 것처럼 하고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는, 애도 아직 저녁을 못 먹었을지 모른다고 밥그릇을 도로 끌어다 한 술 입에 떠넣으며 이번에는 애보고, 맛있으니 너도 먹으라는 것이었으나, 자신은 입맛을 잃은 탓만도 아닌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 좀처럼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송영감의 내면심리 내적갈등

다음날 아침에는 송 영감이 죽인지 밥인지 모를 것을 끓였다. 여전히 입맛은 없었으나 어제 저녁처럼 목이 메어 오르는 것은 없었다.

오늘은 또 지어 올리는 독을 말리느라고 처음에는 독 밖에 피워 놓았다가 독이 한 반쯤 지어지면 독 안에 매달아 놓은 숯불의 숯내까지가 머리를 더 무겁게 했다.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

갈등

갈등

공감

송 영감은 어제보다 더 쓰러져 넘어지는 도수가 많았다. 흙이끼던 뽕손이가 이래서는 도무지 한 가마 채우지 못하리라고 송 영감에게 내년에 마저 지어 첫 가마에 넣도록 하는 게 어떠냐고 몇 번이고 권해 보았으나 송 영감은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면서도 **독 짓기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았다.**

의지. 열정
예술가로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조마구와 부채마치:옹기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한 쌍의 도구.
*전:옹기 등 물건의 위쪽 가장자리가 조금 넓적하게 된 부분.

21. <보기>의 관점에서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장인(匠人)’을 소재로 한 문학 작품에서 ‘장인’은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술자의 모습과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가의 모습을 모두 지닌 존재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의 숙련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극복하며 경지에 이른 장인은 자신이 제작하는 작품을 통해 예술가적 집념과 열의를 보여 준다.

- ㉠ ‘아내! 이걸 독이 아내!’는 ㉠의 원인이 되는 장인의 엄격한 미적 기준을 드러내며,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는 ㉡를 향한 장인의 **예술가적 집념**을 보여 준다.
- ㉡ ‘흙덩이다!’는 장인의 **가치 판단**으로 ㉠의 동기를 드러내고, ‘흙 몇 덩이’는 ㉡에서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소재**를 지칭한다.
- ㉢ ‘매섭게 보다가 행하니 간다’는 ㉠로 인해 벌어지는 장인과 **주변 인물의 갈등**을 보여 주고, ‘조수의 환영’은 ㉡의 과정에서 **장인의 고뇌에 영향을 미치는 갈등 요인**을 드러낸다.

✗ 풀썩 주저앉고 만다는 ㉠를 계기로 **예술가의 집념이 좌절됨을**,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의 과정에서 **부딪힌 장인으로서의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다.

주제 : 건강악화. 능력한계에도 불구하고, 극복의지

㉤ ㉠의 행동 이후 ‘조각난 독을 쓸어안고 오열하는’ 것은 **미적 가치 추구의 어려움**을, ㉡를 ‘그만두려고 하지는 않’는 것은 미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열의**를 드러낸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옥수’의 걱정이 ‘송 영감’~~보이는~~ 독에 가 있음을 알려 준다. **옥수. 성격 내면심리**
 - ㉡ ㉡:‘뽕손이’가 ‘송 영감’의 행동을 ~~의관함~~에서 비롯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 준다. **공감**
 - ㉢ ㉢:‘석현’이 독의 완성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송 영감의 기준과 다름을 보여 준다. **갈등 원인**
 - ㉣ ㉣:송 영감이 독을 제대로 구워 내지 못하는 가마에 불만을 품고 있음을 드러낸다.
 - ㉤ ㉤:‘애’가 언제나처럼 ‘뽕손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올 것이라 믿고 있음을 나타낸다.

23. [A]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 ㉡ 인물 간의 대화에 서술자가 개입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 새로운 인물이 다른 인물의 대화를 통해 등장함으로써, 인물 간의 대립 구도가 전환되고 있다.
 - ㉣ 서술자가 인물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주제(의도) : 내면심리. 내적갈등**
 - ㉤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공간적 거리와 결부하여 서술함으로써,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시나리오 「독 짓는 늙은이」는 원작과 달리,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인물들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으로써 개연성을 높였다. 또한 영화 기법 용어들의 사용과 지시문을 통한 시각적 묘사는 현실감을 높이고 현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백자기의 형체가’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함으로써 이를 바라보는 행위에 개연성을 더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나가떨어지는’과 같은 사실적인 행위를 통해 갈등 상황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 ㉢ (가)에서는 ‘뚜왕 뚜왕 뚜왕’의 효과음을 이용하여 현장성을 강조하고 인물의 내면적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 ㉣ (나)의 ‘못나게 지어지곤 했다’와 같이 진술되는 내용이 (가)에서는 ‘비틀어진 독’과 같은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시각적 묘사로 현실감을 높이고 있다.
- ㉤ (나)의 ‘제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와 (가)의 ‘마치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 느껴지는’은 **모두 지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내면심리 묘사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준구와 아내 홍 씨는 서희가 물려받아
야 할 최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
기 위해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떼 쌓아도 알 만치는 나도 알고
있이니까요. 머 내가 횡방을 놓자고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온 건데 너무 그러지 마소. 한
마디로 딱 짤라서 말하겄소.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
을 먼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오. 고방에는 곡식이 썩을
만큼 쌓여 있고 안팎으로 쌓인 기이 재물인데 큰일을 하자
카쁜 빈손으로 우쭐 하겄소. 그러니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
부터 치고 보문 ㉠ 평 목고 알 목는 거 아니겄소."

"아아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마는."

"하기사 전력이 있으니께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
니겄소. 하지마는 두고 보문 알 거 아니오?"

"야, 야 정신 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이더라도 내 안 들은 거로 해 둘 기니 어서 돌아가거
라. 공연히 신세 망칠라."

윤보는 삼수 등을 민다.

"이거 놓으소. 누가 안 가까 바 이려요? 지내 놓고 보문
알 기니까요. 내가 머 염탐이라도 하러 온 줄 아요? 흥, ㉡
그랬을 양이른 벌써 조가 늠한테 동네 소문 고해바쳤일 기
고 읍내서 순사가 와도 몇 놈 왔일 거 아니오."

큰소리로 지껄이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빌어먹을, 이거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겄
네. 날을 다가야겠다.'

[A]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다. 칠혹의 밤
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목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
이 모여들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 않
았지만 집집에선 인적기가 난다. 언덕 위의 최 참판택은
어둠에 묻혀 위엄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타작마
당에서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알게
울리고, 이윽고 햇불이 한 개 두 개 또 세 개, 계속하여
늘어나고 그 햇불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중략 부분 줄거리]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조준구와 홍
씨는 사당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는다.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다.

"서희 이, 이년! 썩 나오지 못할까!"

나오길 기다릴 흥 씨는 아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희를 끌어 일으킨다.

"네년 소행인 줄 뉘 모를 줄 알았더냐? 자야! 내 왔다! 이
제 죽여 보아라! ㉢ 화적 놈 불러들일 것 없이!"

나오지 않는 목청을 뽑으며, 거품이 입가에 묻어 나온다.

"자야! 자야! 못 죽이겠니?"

손이 뺄 위로 날았다. 앞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
댄다. 서희 얼굴이 흠뻑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봉순이,

"왜 이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뜰어지는 소리와
함께 흥 씨 손에 웃고름이 남는다.

[B] "감히 누굴! 감히!"

하다가 별안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맨발로 언뎀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애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 간다.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은
아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희는 언뎀가에서 걸음을 뚝

멈춘다. 돌아본다. 흠뻑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냐?"

나직한 음성이다. 흥 씨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

"㉣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

여전히 나직한 음성이다.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우리 내외한테 비상을 먹이겄
다 그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는 헛웃음을 울더니 이번
에는 봉순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꺼두르고 한 소동을
피운다. 읍내서 현병, 순사들이 왔다는 말에 흥 씨는 겨우
본체로 돌아갔다. 서희는 찢겨진 저고리를 내려다본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눈이 부어오른 봉순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찾았지마는 사당 마릿장 밑에 숨은
줄이야 우, 우쭐 으호호호"

되풀이 입술을 떨면서 서희는 말했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달려온 헌병들에게 맨 먼저 당한 것은 삼수다.

“나, 나으리! 이, 이기가 우찌 된 영문입니꺼!”

헌병이 총대를 들이대자 겁에 질린 삼수는 그러나 무엇이든 잘 못되었거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하였다.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구!”

무섭게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

“예? 머, 머, 머라 켜십니까?”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나?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네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으음,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라구. 이놈! 어디 한번 죽어 보라!”

“나, 나으리! 꾸,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 이 목숨을 건지 디던 이, 이 삼수 놈을 말입니다!”

그러나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었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 폭도란 의병을 일컫는 것이다.

-박경리, 「토지」-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 ② [B]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 ③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 ④ [A]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 간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 ⑤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드러낸다.

1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삼수는 자신의 말대로 하면 '조가'도 제거할 수 있고 윤보의 계획도 숨길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 ② ㉡ : 삼수는 자신이 윤보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 이를 동네에 알려줬다며 윤보를 협박하고 있다.
- ③ ㉢ : 흥 씨는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를 '화적 놈'이라 부르며 서회가 그들과 공모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 ④ ㉣ : 서회는 흥 씨에게 흥 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 ⑤ ㉣ : 조준구는 지난밤 자신을 습격했던 삼수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 ①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윤보는 삼수와 협력 관계를 거부한 것이군.
- ②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횃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준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군.
- ③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회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회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군.
- ④ 흥 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회가 흥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한 것으로 보아, 흥 씨와 서회는 대립 관계를 이어 가겠군.
- ⑤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 줬다는 것으로 보아,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군.

여러분 다 푸셨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충분히 고민하고, 답을 하나 정한 뒤, 뒷장으로 갑니다.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준구**와 아내 **홍 씨**는 **서희**가 물려받아야 할 **최 참판**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 참판**이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왜?**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떼 쌓아도 알 만치는 나도 알고 있으니께요. 머 내기 **혜방**을 놓자고 찾아온 것도 아니었고, 나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온 건데 너무 그러지 마소. 한 마디로 딱 짤라서 말하겔소.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을 먼지 치고 **기작하라** 그 말이오. 고방에는 곡식이 썩을 만큼 쌓여 있고 안팎으로 쌓인 기이 재물인데 큰일을 하자 카든 빈손으로 우찌 하겔소. 그러니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 부터 치고 보문 **㉠** **평 목고** **알 목는 거 아니겔소"**

"아아가 삼 제정신이 아니구마는."

"하지마 전력이 있으니께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겔소. 하지마는 두고 보문 알 거 아니오?"

"야, 야 정신 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이더라도 내 안 들은 거로 해 둘 기니 어서 돌아가거라. **봉연**히 신세 망칠라."

윤보는 삼수 등을 민다.

"이거 놓으소. 누가 안 가가 바 이려요? 지내 놓고 보문 알 기니께요. 내가 머 **염탐**이라도 하러 온 줄 아요? **홍**, **㉡** **그랬을 양이론** **별째** **조가** **놀한테** **동네** **소문** **고해**바쳤일 기고 읍내서 **순사가** **와도** **몇** **놈** **왔일** 거 아니오."

큰소리로 지껄이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빌어먹을**, 이거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겔네. **날을** **다가**야겔다.'

[A]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다. 칠혹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모여들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 않았지만 집집이선 인적이기 나다. 언덕 위의 **최 참판**은 어둠에 묻혀 위엄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타작마당에서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알게** 울리고 **이윽고** **햇빛**이 한 개 두 개 또 세 개, 계속하여 **늘어나고** 그 **햇복**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중략 부분 줄거리]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조준구**와 **홍 씨**는 **사당** **마루** **밑에** **숨어** 있다 **삼수**의 도움을 받는다.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다.

"서희 이, 이년! 썩 나오지 못할까!"

나오길 기다릴 **홍 씨**는 아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희를 끌어 일으킨다.

"네년 **소행**인 **죽** **누** **모름** **줄** **알았**더냐? **자아**! **내** **왔다**! **이** **제** **죽**어 **보아라**! **㉢** **화적** **놈** **불러** **들일** **것** **없**이!"

나오지 않는 목청을 뽑으며, 거품이 입가에 묻어 나온다.

"자아! 자아! 못 죽이겠니?"

손이 **뺨** 위로 **날**았다. **앞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 **댄다**. **서희**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봉순**이

"왜 이러시오!"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뜰어지는 소리와 함께 **홍 씨** **손**에 **웃고**름이 남는다.

"감히 누굴! 감히!"

하다가 **별안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뒤통**로 **언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애기씨!"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 **간다**.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은 **아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희는 언뜻가에서 걸음을 뚝

멈춘다. 돌아본다. **흙빛**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나?"

나직한 음성이다. **홍 씨** **눈**을 **뚝**바로 **주**시한다.

"**㉣** **사람** **영**약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

여전히 나직한 음성이다.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우리** **내외**한테 **비**상을 **먹**이겔다 **그** **말**이나?"

아이고!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는 **헛**웃음을 **울**더니 이번에는 **봉순**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꺼**두르고 **한** **소**동을 **피**운다. 읍내서 **현병**, **순사**들이 **왔다**는 **말**에 **홍 씨**는 **겨우** **본**체로 **돌**아갔다. 서희는 **찢**겨진 **저**고리를 **내**려다본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눈이 부어오른 **봉순**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찾**았지마는 **사**당 **마**릿장 **밑**에 **숨**은 **줄**이야 **우**, **우**찌 **으**호호호"

되풀이 입술을 떨면서 서희는 말했다.

"**길**상이 **놈**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결백 주장

윤보 성격

삼수격정

결백 주장

삼수 성격 기회주의자

습격 장면

내면심리

내면심리

갈등폭발

습격

성격변화 입체적 인물

성격: 서희격정

내면심리

달려온 헌병들에게 맨 먼저 당한 것은 삼수다.

“나, 나으리! 이, 이기가 우찌 된 영문입니까!”

헌병이 총대를 들이대자 겁에 질린 삼수는 그러나 무엇이든 잘 못되었거나 믿는 구석이 있어서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하였다.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구!”

문설계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

“예? 머, 머, 머라 켜십니까?”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나!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네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으음,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라구. 이놈! 어디 한번 죽어 바라!”

“나, 나으리! 꾸,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 이 목숨을 건지던 이, 이 삼수 놈을 말입니다!”

그러나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었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 **폭도란 의병을 일컫는 것이다.**

습격 누명

습격

-박경리, 「토지」-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습격장면** **갈등폭발**
- ② [B]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 ③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습격**
- ④ [A]는 시제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 간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습격**
- ⑤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드러낸다. **습격**

대립의 원인은 습격인데... 습격은 [B] 장면이 아님!

1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삼수는 자신의 말대로 하면 '조가'도 제거할 수 있고 윤보의 계획도 숨길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 ② ㉡ : 삼수는 자신이 윤보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 이를 동네에 알려줬다며 윤보를 협박하고 있다.
- ③ ㉢ : 홍 씨는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를 '화적 놈'이라 부르며 서희가 그들과 공모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 ④ ㉣ : 서희는 홍 씨에게 홍 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 ⑤ ㉣ : 조준구는 지난밤 자신을 습격했던 삼수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글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건... 바로 전체를 관통하는 사건인 '습격을 파악해서 집중했다면 정답 선지가 입체적으로 보임!

18.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 ①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윤보는 삼수와 협력 관계를 거부한 것이군.
- ②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햇불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준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군.
- ③ 봉순이가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서희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군. **봉순이 성격 파악 : 지문 - 서희 보좌, 걱정**
- ④ 홍 씨의 모욕에 죽을 생각을 했던 서희가 홍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한 것으로 보아, 홍 씨와 서희는 대립 관계를 이어 가겠군.
- ⑤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 줬다는 것으로 보아,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군.

[앞부분 줄거리] 조준구와 아내 홍 씨는 서희가 물려받아
야 할 최 참판가의 재산을 가로채고, 하인 삼수를 내세워 마
을 사람들을 착취한다. 한편, 윤보는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는데 삼수가 찾아온다.

수능 국어 소설 지문의 가장 큰 특징.
첫 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됩니다.
따라서, 첫 부분 확실하게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줄거리로 제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읽어보니, 쉽지 않습니다.

조준구

홍씨

서희

최참판

삼수

윤보

벌써 6명의 인물에

- 1. 재산 가로채고
- 2. 사람들 착취하고
- 3. 습격 준비 중에
- 4. 삼수가 찾아오는

4가지 사건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에 따라 접근한다면,

문제 난이도는 정말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무리 그리 시치미를 떼 쌓아도 알 만치는 나도 알고 있
이니께요. 머 내가 웨방을 놓자고 찾아온 것도 아니겼고, 나
는 나대로 생각이 있어서 온 긴데 너무 그러지 마소. 한마디
로 딱 짚라서 말하겄소. 왜놈들하고 한통속인 조가 놈을 먼지
치고 시작하라 그 말이오. 고방에는 곡식이 썩을 만큼 쌓여
있고 안팎으로 쌓인 기이 재물인데 큰일을 하자 카른 빈손으
로 우찌 하겄소. 그러니 왜놈과 한통속인 조가부터 치고 보른

㉠ 꿩 목고 알 목는 거 아니겼소.”

삼수가 왜 찾아왔나 했더니,
친일파 조준구를 같이 조지겠다고 합니다.

“야아가 참 제정신이 아니구마는.”

“하기사 전력이 있으니께 나를 믿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
겼소. 하지마는 두고 보른 알 거 아니오?”

자기 평소 행실 때문에, 믿지 못할 거라 생각.

그래서 결백을 주장하는데

“야, 야 정신 산란하다. 나는 원체 입이 무겁고 또 초록은
동색이더라도 내 안 들은 거로 해 돌 기니 어서 돌아가거라.
공연히 신세 망칠라.”

윤보는 삼수 등을 민다.

윤보의 성격이 나오는군요.

사실 삼수를 이용하면 훨씬 쉽게 일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삼수 인생 조지지 말라고 배려하는 모습.

참... 윤보... 너란 녀석... 착하기 그지 없구나

“이거 놓으소. 누가 안 가까 바 이려요? 지내 놓고 보른 알
기니께요. 내가 머 염탐이라도 하러 온 줄 아요? 흥, ㉠그랬을
양이든 벌써 조가 놈한테 동네 소문 고해바칠일 기고 읍내서
순사가 와도 몇 놈 왔일 거 아니오.”

큰소리로 지껄이며 삼수는 언덕을 내려간다.

삼수가 정말 윤보를 도우려고 저렇게 결백을 주장하나 싶죠?

‘빌어먹을, 이거 다 된 죽에 코 빠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날을 다가야겠다.’

하... 아니군요.

결국 기회주의자 삼수였습니다.

[A] 삼수가 왔다 간 다음 날 밤, 자정이 넘었다. 칠혹의 밤을
타고 덩어리 같은 침묵을 지키며 타작마당에 장정들이 모
여들었다. 마을에서는 개들이 짖는다. 불은 켜지 않았지만
집집에선 인적기가 난다. 언덕 위의 최 참판택은 어둠에
묻혀 위엄에 찬 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 타작마당에서는
윤보의 그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평소보다 알게 울리고, 이
윙크 햇불이 한 개 두 개 또 세 개, 계속하여 늘어나고 그
햇불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A] 습격 장면입니다.

줄거리에도 나왔듯,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다시 이는 중략 부분 줄거리로 이어지고,

[중략 부분 줄거리] 윤보 일행이 **습격**하자 조준구와 홍 씨는 사당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삼수의 도움을 받는다. 윤보 일행이 떠나고 날이 밝았다.

"서희 이, 이년! 썩 나오지 못할까!"

나오길 기다릴 홍 씨는 아니다. 방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서희를 끌어 일으킨다.

"네년 소행인 줄 **늬** **모름** 줄 알았더냐? 자아! 내 왔다! 이제 죽어 보아라! **화적** **눈** **볼라** 들일 것 없이!"

나오지 않는 목청을 뽑으며, 거품이 입가에 묻어 나온다.

심지어, 홍씨가 서희를 쥐잡듯 잡는 갈등의 원인으로 가지 연결됩니다.

"자아! 자아! 못 죽이겠니?"

갈등폭발
손이 **뺨** 위로 **날았다**. 앞가슴을 잡고 와락와락 흔들어댄다. 서희 얼굴이 **흙빛**으로 **변한다**. **울고** 있던 **봉순이**,

"왜 이러시오!" **내면심리** **성격: 서희격정**

달려들어 서희 몸을 잡아당기니 실 뜰어지는 소리와 함께 홍 씨 손에 웃고름이 남는다.

"감히 누구! 감히!"

[B]

하다가 별안간 방에서 뛰쳐나간다. 맨발로 연못을 향해 몸을 날린다. 그는 **죽을** 생각을 했던 것이다.

"애기씨!" **내면심리**

울부짖으며 봉순이 뒤쫓아 간다.

"죽어라! 죽어! 잘 생각했어! 어차피 너는 산목숨은 아니란 말이야! 죽고 남지 못할 거란 말이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서희는 연못가에서 걸음을 딱

멈춘다. 돌아본다. **흙빛** 얼굴에 **웃음이** 지나간다.

"내가 왜 죽지? 누구 좋아하라고 죽는단 말이냐?" **내면심리**

B장면은,

습격으로 인해 시작된

홍씨의 일방적 폭행과,

갈등의 폭발.

그로 인한 서희의 내면심리 묘사, 성격, 봉순이 성격 제시

나직한 음성이다. 홍 씨 눈을 똑바로 주시한다.

"@사람 영악한 것은 범보다 더 무섭다는 말 못 들으셨소?"

여전히 나직한 음성이다.

서희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는 말을 들었고,

예전에는 이런 수모를 당하면 차라리 죽어야지 했다가

[B]장면 부터는 성격이 바뀝니다

너... 부숩버리겠어.

라는 군요.

사람이 영악한 것은,

범보다 무섭다, 그러니 너 나 잘못 건드렸어...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무서우면 어떻게 무서워! 우리 내외한테 비상을 먹이겠다 그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눈물도 안 나오는 헛웃음을 울더니 이번에는 봉순에게 달려들어 머리끄덩이를 꺼두르고 한 소동을 피운다. 읊내서 헌병, 순사들이 왔다는 말에 홍 씨는 겨우 본체로 돌아갔다. 서희는 찢겨진 저고리를 내려다본다.

"길상이 놀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눈이 부어오른 봉순이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찾았지마는 사당 마릿장 밑에 숨은 줄이야 우, 우찌 으호호호."

되풀이 입술을 떨면서 서희는 말했다.

"길상이 놀이 날 죽으라고 내버리고 갔다."

계속 반복되는 대사라 정보 가치가 있는데, 문제와는 관련이 없네요. 하지만 추후 이런 접근 연습은 큰 도움이 됩니다.

달려온 헌병들에게 맨 먼저 당한 것은 삼수다.

"나, 나오리! 이, 이기이 우찌 된 영문입니까!"

헌병이 총대를 들이대자 겁에 질린 삼수는 그러나 무엇인가 잘못되었거니 믿는 구석이 있어서 조준구를 향해 도움을 청하였다.

"이놈! 이 찢어 죽일 놈 같으니라구!"

무섭게 눈을 부릅뜬 조준구를 바라본 삼수 얼굴은 일순 백지장으로 변한다.

"예? 머, 머, 머라 캬십니까?"

습격
누명

"이놈! 네 죄를 몰라 하는 말이냐? @간밤에 감수한 생각을

하면 네놈을 내 손으로 타살할 것이로되 으음, 능지처참할 놈 같으니라구. 이놈! 어디 한번 죽어 봐라!"

"나, 나으리! 꾸, 꿈을 꾸시는 겁니까? 이, 이 목심을 건지 디린 이, 이 삼수 놈을 말입니다!"

그러나 조준구는 바로 저놈이 폭도의 앞잡이었다고 이미 한 말을 다시 강조할 뿐이다. 물론 이 경우 **폭도란 의병을 일** **습격** **-박경리, 「토지」-**

삼수에게 누명을 씌우고, 끝까지 습격이라는 사건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면? 문제는? 개념 적용 보다는 '내용' **정보가치 높은 평가** **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 중심**으로 문제 접근하라 말씀드렸습니다!

1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습격 장면, [B]는 그 습격으로 화가 난 홍씨가 화풀이를 서희에게 하며, 서희와 **갈등**이 폭발, 서희의 **내면심리**와 봉순이의 **성격**이 제시되는 장면이었습니다.

- ①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은밀한** 행동 양상을 드러낸다.

비유적 표현 개념어에 집중 하지 말구요!

습격 장면이니 은밀해야죠!

- ② [B]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행동의 격렬함**을 강조한다.

역시, 개념 음성 상징어 찾지 말구요!

갈등 폭발 장면이었으니 당연히 행동이 격렬하겠죠!

- ③ [A]는 **장면에 대한 관찰**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B]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나타난다.

역시 습격 장면, 당연히 관찰, 내면심리 묘사.

여러분... 수십가지의 개념 다 확인 못합니다. 기억도 없고, 그때 그때 발췌록 하는 과정에서 실수 유발됩니다!

- ④ [A]는 시체가 과거형에서 현재형으로 바뀌면서 **장면에 긴장감을 더하고**, [B]는 현재형 진술을 활용하여 **인물 간 갈등**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한다.

제발... 과거형 현재형 찾다가 시간, 실수 모두 손해보지 말고!

습격이니 긴장감

갈등 폭발! 모두 확인!

- ⑤ [A]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장면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B]는 공간적 배경의 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원인**을 드러낸다.

응?

그런데 인물 간 대립 원인은

습격 아니었나요?

[B]는 그런 장면이 아닌디???

역시 정답!

가장 정보가치 높았던 '습격'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그리고,

1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삼수는 자신의 말대로 하면 '조가'도 제거할 수 있고 윤보의 계획도 숨길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 ② ㉡ : 삼수는 자신이 윤보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어 이를 동시에 알리겠다며 윤보를 협박하고 있다.
- ③ ㉢ : 홍 씨는 자신을 습격했던 무리를 '화적 놈'이라 부르며 서희가 그들과 공모했다고 몰아가고 있다.
- ④ ㉣ : 서희는 홍 씨에게 홍 씨의 뻔뻔함과 영악함이 도를 넘었음을 경고하고 있다.
- ⑤ ㉤ : 조준구는 지난밤 자신을 습격했던 삼수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다.

역시! 가장 정보가치 높았던 '습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바로 정답으로 이어지네요!

놀랍죠?

소설 자체는 어려운데,

문제는 이렇게 쉽다니...

왜죠? 평가원이 원하는 형태의 규격으로 정보처리 했으니, 엇갈림 없이 딱 떨어지는 접근이 됩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토지」는 개화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수난과 저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와 사회적 관계는 이 시기를 거치며 큰 변화를 겪는데, 「토지」에서는 몰락한 양반층, 친일 세력, 저항 세력, 기회주의자 등 다양한 인물들이 때로 협력하고 때로 대립하면서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 ① 최 참판가 습격을 준비하던 윤보가 삼수의 제안을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아, 윤보는 삼수와 협력 관계를 거부한 것이군.
- ② 타작마당에 모인 장정들이 햇볕을 들고 윤보와 함께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조준구로 대표되는 친일 세력과 대립하고 있군.
- ③ 봉순이가 달려들어 사회 몸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아, 이전까지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신분 질서가 흔들리며 봉순이와 사회의 협력 관계가 약화되고 있군.
- ④ 흥 씨의 보육에 죽을 생각을 했던 사회가 흥 씨의 눈을 똑바로 주시한 것으로 보아, 흥 씨와 사회는 대립 관계를 이어 가겠군.
- ⑤ 윤보에게 조준구를 치라고 했던 삼수가 조준구의 목숨을 구해 줬다는 것으로 보아, 조준구와 삼수의 관계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군.

봉순이는 사회를 계속해서 보살피는 성격을 보임. 답3번!

여러분...

이제, 제가 보기부터 보지 말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보기는 보기 문제일 뿐이에요.

보기로 접근의 관점을 주고 싶었다면, 이미 출제된 비평문 형태로 지문에 묶었겠죠.

이렇게 출제된 것은,

오히려 보기가,

작품 감상에 잘못된 관점을 심어 줄 수 있어요.

물론 문학 작품 감상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보기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접근은 이런 문제들에서 터져나갈 수 있는 리스크를 항상 갖게 해요.

지와 같이

평가원이 원하는 형태의 정보처리 규격에 맞게 정보를 처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현행 수능의 유일한 답입니다.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新수능국어의 특징>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1. 주제 : 서사, 줄거리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다시 한 번, 속지 합니다.

다음 지문은 2020학년도 6월 평가원에서 오답률 3위 문제가 있는 지문인데...

일단 풀어보시고,

그 뒤 문제까지 이어서 풀어보세요. 특히 2019학년도 수능 45번 문제에 집중하세요!

연결해 풀라는 의도도 생각해보시고요!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조웅은 송나라 회복을 위해 태자를 구해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곡을 향한다.

이적에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군마를 다 쉬게 하고 원수도 노곤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A]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첩첩한 산중에 수목이 뻗뻗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연한 별세계라.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나아가 보니 문에 현판을 붙였 으되, '만고충렬문'이라 뚜렷이 쓰여 있었다.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며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없더라.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 된 줄을 모르매 분부 왈,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 왈,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 일을 살펴보니 복이 복두칠성과 일월에 찬란하리로다."

또 한 공적에 왈,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 될 만하도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하는도다."

하였더라.

그 남은 공적은 어찌 다 기록하리오. 좌중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회를 다하고, 혹 노기 등천하며, 혹 칼을 빼들고 매우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쓌고, 어떤 자는 강충강충 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추기도 하는지라. 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새, 한 사람이 좌중에 나와 앉으며 왈,

"우리 각각 소회는 옛일이라. 한하여도 미치지 못하러니와 알지 못하겠노라. 대송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었으면 언제 회복되오리까?"

하니 한 사람이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오리까?"

한데, 또 한 사람이,

"그대 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웅을 명하였더니, 불쌍하도다 조웅이여! 일시가 극난

하여 명일 미명에 서번 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니 불쌍하도다. 조웅의 일도 우리와 같을지라. 정해진 나이를 못마치고 전쟁의 패한 혼이 될 듯하니 불쌍코 가련하다."

이러할 제 문 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기를,

"송나라 문제 들어오시나이다."

하니,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내려와 영접하여 상좌한 후에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옵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나йка?"

문제 왈,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웅이라. 오다가 한 곳을 보니 불측한 서번이 조웅을 잡으려고 이리저리하였거늘, 행여 그러할까 하여 시운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함에,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하고 부탁하고 오노라."

하시니, 좌중이 외쳐 왈,

"우리는 분명 조웅이 죽으리라 하고 불쌍한 공문을 하였더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천수를 어찌 하오리까?"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중략)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B]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고개 위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에서 슬피 울고, 그윽한 두견성은 불어귀를 일삼았다. 갈 길은 험악한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광은 희미하기만 했다.

선봉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 동편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건과 베옷을 입은 한 노옹이 있어 푸른 나귀를 재촉하며 백우선으로 원수를 만류하거늘 원수가 그 노옹을 바라보니 정신이 황홀하였다. 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그 노옹이 묻기를,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원수가 답 왈,

"그러하오이다."

노옹이 왈,

"위국으로 가는 조 원수를 혹 보셨습니까? 보시면 바빠 알려 주소서."

하였다. 원수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한편으로 이상하게 여겨 왈,

"내가 바로 조웅이거니와 무슨 일로 긴히 찾습니까?"

하니, 노옹이 크게 기뻐하며 왈,

"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천과 명승지를 즐겨 구경하고 두루 다녔는데, 오로봉에 들어갔다가 천명 도사를 만나 수삼 일을 머물렀더니 출발할 때 한 서찰을 주며 왈, '그대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하여 나귀를 바삐 몰아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 버렸기에 행여 못 만날까 염려하였더니 이곳에서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며, 소매 속에서 한 통 편지를 내어 주고는 팔을 들어 하직하거늘 원수 다시 노옹을 바라보니 행색이 아득하였다. 마음속으로 신기하게 여겨 그 편지를 급히 떼어 보니 다른 말은 없고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으로 먼저 들어가서 포를 한 번 쏘라'고만 쓰여 있었다. 원수가 편지를 다 보고는 대경실색하여 좌장군 위홍창을 불러 왈,

"장졸을 함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 홍창이 급히 아뢰길,

"선봉이 이미 함곡에 들어갔습니다."

하거늘 원수가 크게 놀라며 왈,

"너는 급히 들어가 선봉을 데려오라. 데러올 때 조금도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한둘씩 숨어 나오되 빨리 데리고 나오너라."

홍창이 원수의 명을 듣고는 급히 함곡에 들어가서 전하니 선봉이 군사를 몰려 돌아왔다. 원수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을 쳤다.

-작자 미상, 「조옹전」-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 문제는 서번 적의 간계에 빠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 ② 원수는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군마를 멈추었다.
- ③ 노옹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조옹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
- ④ 위홍창은 역적에게 망한 송나라를 구하고자 선봉을 이끌고 함곡에 들어갔다.
- ⑤ 황금관을 쓴 노인은 모임의 상석에 앉아 있다가 딸로 내려와 여러 사람을 맞이했다.

2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공간의 광활함을 통해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이 드러나고 있다.
- ② [B]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낙관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③ [A]에서는 낭만적인 사건에 의한 환상성이, [B]에서는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 의한 현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 ④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B]에서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이 강조되고 있다.
- ⑤ [A]에서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이, [B]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이 드러나고 있다.

25. 큰 잔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참석자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참석자들은 소회를 다한 후 여러 행위를 통해 각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많은 참석자와 가득한 음식 차림을 통해 풍성한 잔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옹전」에서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등을 알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여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① 꿈속에서 송 문제가 조옹을 구하려 하는 것은, 조옹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조옹이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것이겠군.
- ③ 꿈속에서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로 조옹이 거론되는 것은, 조옹에게 주어진 천명을 알게 하려는 것이겠군.
- ④ 조옹이 노옹을 통해 전달 받은 편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조옹이 꿈속 경험에서 알게 된 초월적 세계의 뜻을 신뢰한 것이겠군.
- ⑤ 노옹이 천명 도사의 부탁을 받아 편지를 전하고 떠나는 것은, 노옹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조옹에게 전달하는 사람임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십란한테 대풍(大風)이 일어나서
태산(泰山)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地陷)*에 내려지니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선두 쪽 초석(草席) 돛은 반달처럼 배를렀네
굽은 우레 잔 벼락은 등[背] 아래서 진동하고
성난 고래 동(動)한 용(龍)은 물속에서 회룡하니
방 속의 요강 타구(唾具) 자빠지고 엎어지며
상하좌우 배 방 넓은 잎잎이 우는구나
이윽고 해 돋기를 장관(壯觀)을 하여 보세
일어나 배 문 열고 문설주 잡고 서서
사면(四面)을 돌아보니 어와 장할시고
인생 천지간에 ㉠이런 구경 또 있을까
구만리 우주 속에 큰 물결뿐이로다

(중략)

그중에 전승산이 글 쓰는 양(樣) 바라보고 [A]
필담(筆談)으로 써서 퇴퇴 전문(傳聞)에 퇴석(退石) 선생
쉬 짓기가 유명(有名)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B]
일생 처음 보았으니 었디어 묻잡나니
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퇴석인가 하나이다
내 웃고 써서 퇴퇴 늙고 병든 둔한 글을 [C]
포장(褒獎)을 과히 하니 수괴(羞愧)*키 가이 없다
승산이 다시 하되 소국(小國)의 천한 선비 [D]
세상에 낫삽다가 ㉡장(壯)한 구경 하였으니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아롱보(襖)에 무엇 싸고 삼목궤(杉木櫃)에 무엇 넣어
이마에 손을 얹고 었디어 들이거늘
받아 놓고 피봉(皮封)* 보니 봉(封)한 위에 쓰였으며
각씩 대단(大緘) 삼단이요 사십삼 냥 은자(銀子)로다
놀랍고 어이없어 종이에 써서 퇴퇴 [E]
그대 비록 외국이나 선비의 몸으로서
은화를 갖다 가서 글 값을 주려 하니
그 뜻은 감격하나 의(義)에 크게 가하지 않아
못 받고 도로 주니 허물하지 말지이다

-김인겸, 「일동장유가」-

- *지함: 땅이 움푹하게 주저앉은 곳.
*차아: 줄기에서 벗어 나간 곁가지.
*수괴: 부끄럽고 창피함.
*피봉: 곁봉.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물의 역동성을 통해 공간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
② 거대한 자연물에 비유하여 악화된 기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③ 식물의 연약한 속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위태로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목전에 닥친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다.
⑤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거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44.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 ㉡은 모두 화자의 고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구경하는 대상의 실체를 은폐하고 있다.
③ ㉠은 자연의 풍광에 대한 감탄을, ㉡은 인물의 능력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은 화자의 관찰력에 대한, ㉡은 화자의 창조력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담고 있다.
⑤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만족을, ㉡은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행 가사인 「일동장유가」에는 화자와 일본인 문인 사이의 필담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 필담을 통한 문답 형식은 일종의 대화의 성격을 지닌다. 필담 속에는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 문답의 주요 내용, 의사소통의 심층적 의미, 선비로서의 예법 등이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다.

- ① [A]는 [B]~[D]의 필담이 시작되는 계기를 보여 주는군.
② [B]의 '빠른 재주'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C]의 '늙고 병든 둔한 글'은 자신의 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보여 주는군.
③ [B]의 '필담으로 써서 퇴퇴'와 [C]의 '내 웃고 써서 퇴퇴'를 통해,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군.
④ [B]의 '귀한 별호 퇴석'과 [D]의 '소국의 천한 선비'는 선비의 예법을 동원하여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표현이군.
⑤ [D]에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찬사가 나타나 있고, [E]에는 상대의 글 값에 대한 '나'의 거절이 드러나 있군.

혹시 의도 아시겠나요?

6평 바로 전 수업

대전 수업에서 학생 질문이 들어왔어요.

2019학년도 수능 45번

20분을 해면 뒤 설명해줬고,

그 덕에 대전 학생들과 저는 2020학년도 6평 뒤에 웃을 수 있었죠.

전체 오답률 3등.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문제와 똑같은 유형과 접근법이 필요했던 문제가 바로...

제가 수업 시간에 20분을 버벅거리서

모든 학생들과 제 기억에 선명히 남은...

2019학년도 수능 45번

2020학년도 6평 25번

문제는...

6평 이후 대치 강남에서만 1500% 수강생이 성장했고,

제 수업을 수강하는 많은 학생들이, 대치동의 마감반 수업을 병행하는데...

학생들이 말 해줘서 알게 된, 시중에 넘쳐나는 오해설...

자칭 타칭 1타 강사들의 오해설이라 더 충격적이에요.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할게요.

2019학년도 수능 45번

그중에 ^S전승산이 글 쓰는 양(樣) ^V바라보고 [A]

필담(筆談)으로 써서 ^V되되 ^V전문(傳聞)에 퇴석(退石) 선생

쉬 짓기가 유명(有名)터니 선생의 빠른 재주 [B]

일생 처음 보았으니 ^V엎디어 묻잡나니

필연코 귀한 별호(別號) ^V퇴석인가 하나이다

여기까지 모두 주어는?

전승산. 그래서 승산이가 퇴석 선생을 높이며 대사치는거예요.
즉, 주어 서술어 정확히 파악 못하면 터지는 문제였죠.

내 웃고 써서 ^V되되 ^V늙고 병든 ^V둔한 글을 [C]

포장(褒獎)을 과히 하니 수괴(羞愧)*키 가이 없다

그러니 이제 퇴석 선생이 대답하죠?

자기 스스로를 낮추며 ^V늙고 ^V병든 ^V둔한 글 이라며...

여러분 이런 말을 남이 나한테 하면,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는 스스로 낮춘 거라 봐야죠?

승산^S이 다시 하되 소국(小國)의 천한 선비 [D]

세상에 났삼다가 ^V장(壯)한 구경 하였으니

저녁에 죽사와도 여한이 없다 하고

어디로 나가더니 또다시 들어와서

다시 주어는 승산이가

소국의 천한선비?

역시 스스로 낮추는거죠? 남한테 그랬다가는 싸운대니까.

- ① [A]는 [B]~[D]의 **필답이 시작**되는 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B]의 '빠른 재주'는 '나'의 글에 대한 상대의 평가를,

나 = 퇴석선생

상대 = 승산

승산이가 퇴석선생 칭찬

[C]의 '늙고 병든 둔한 글'은 자신의 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보여 주는군.

이에 대해 퇴석 선생은 겸손하며 자신을 낮추죠!

- ③ [B]의 '필답으로 써서 뵈되'와 [C]의 '내 웃고 써서 뵈되'를 통해, 문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의사소통 장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군.

당연.

- ④ [B]의 '귀한 별호 퇴석'과 [D]의 '소국의 친한 선비'는 선비의 예법을 동원하여 ~~동일한~~ 사람을 다르게 지칭한 표현이군.

B의 주어는 승산이, 그래서 승산이가 퇴석을 높임

D의 주어는 역시 승산이, 여기서는 자신을 낮춤.

서로 다르네요!

정답!

이제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갑니다!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며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없더라.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 된 줄을 모르매 분부 왈,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 왈,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 일을 살펴보니 복이 북두칠성과 일월에 찬란하리로다.”

또 한 공적에 왈,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 될 만하도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하는도다.”

하였더라.

그 남은 공적은 어찌 다 기록하리오. 좌중의 여러 사람들이 각 각 소회를 다하고, 혹 노기 등천하며, 혹 칼을 빼들고 매우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강충강충 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추기도 하는지라. 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새, 한 사람이 좌중에 나와 앉으며 왈,

분석 합니다!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며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윗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없더라.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 된 줄을 모르매 분부 왈,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

제왕이 밑에서 시골시골 하니 뭐 소린지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 니들 한 명씩 말해봐! 이거죠?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 왈,

여전히 한 문장 안 끝났고, 그래서 주어는? 제왕의 대사죠?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 일을 살펴보니 복이 북두칠성과 일월에 **찬란하리로다**.”

뭔가 이상하네요?

‘저’

1. 낮춤 표현 인데...

그럼, 제왕의 대사가 아닌가?

아니죠!

한 문장이 안 끝났으니까!

여전히 제왕의 대사고!

마지막!

‘아니하리로다. 찬란하리로다.’

반말로 끝나잖아요!

또 한 공적에 왈,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 될 만하도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하는도다.”

하였더라.

또!
 보시다시피,
 뒤의 대사는 완전히 반말 + 평가예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참석자 서로의 평가였다면,
 반말을 저렇게 했을까요?
 즉, 제왕의 대사이니,
 반말이고...
 그러면, 다시.

지금 잘 잡으세요!
 그러면 이어서 지문 분석 후 나머지 문제들도 풀어봅시다.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다**.
 옛 일을 살펴보니 복이 복두칠성과 일월에 **찬란하리로다**.”

- 1. 자신을 낮춤 표현
- 2. 지시어 ex)저(자), 저(기), 저(사람) 옳군요!

25. 큰 잔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 제왕이 공적 평가 라고 바꿔야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 풀었는데 답 골랐다가?
 그럼 엄청난 리스크를 안는겁니다.
 운 좋게 6평에서 맞은 거지,
 수능날 저렇게 풀면?
 얼마든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학은 숫자가 틀리거나,
 풀이과정이 다르면, 사고를 객관화 하여 논리적으로 판단해 교
 정할 기회가 있지만,
 국어는 거의 없습니다.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즐거리 조웅은 송나라 회복을 위해 태자를 구해 함께 위국으로 가던 중 서번국 병사가 매복한 함곡을 향한다.

이적에 원수가 여러 날 만에 연주에 도달하여 군마를 다 쉬게 하고 원수도 노곤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나비가 침상에 날아들거늘 원수도 자연스럽게 날개를 얻어 그 나비를 따라 공중에 날아 한 곳에 이르니, 집적한 산중에 수목이 뻥뻥한 곳을 깊이 들어가니 그 가운데 광활하여 완전한 별세계라. 또 한 곳을 들어가니 아름다운 궁궐이 하늘에 닿았거늘, 나아가 보니 문에 현판을 붙였 으되, '만고총합'이라 뚜렷이 쓰여 있었다.

궁궐 위를 바라보니 한 노인이 앉았으리 얼굴은 관옥 같고 머리에 황금관을 쓰고 몸에 용포를 입고 뒷자리에 높이 앉았는데, 무수한 사람들이 열좌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과 음식이 가득한 중에 절대 가인이 차례로 앉았으니, 그 아름다움이 측량없었다.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뒷자리에 앉은 세왕은 어찌 된 줄을 모르매 분부 왈,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히어 올리라."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에 왈
"저는 본래 한나라 신하로 깊은 뜻이 많지 아니하리로나 옛 일을 살펴보니 복이 북두칠성과 일월에 찬란하리로나."

또 한 공적에 왈

"칼을 잡아 흉적을 소멸하니 제후 될 만하도다. 천하를 성처럼 막았으니 문호 세상에 진동하는도다."

하였더라.

그 남은 공적은 어찌 다 기록하리오, 좌중의 여러 사람들이 각각 소회를 다하고, 혹 노기 등천하며, 혹 칼을 빼들고 매우 성을 내고, 어떤 자는 땅에 섰고, 어떤 자는 깡충깡충 뛰며, 어떤 자는 노래하고, 어떤 자는 춤추기도 하는지라. 이러한 좋은 장면을 세밀히 구경할새, 한 사람이 좌중에 나와 앉으며 왈

"우리 각각 소회는 옛일이라. 한하여도 미치지 못하러니와 알지 못하겠노라. 대승이 역적에 망하니 인하여 멸송이 되었으면 언제 회복되오리까?"

하니 한 사람이

"송나라의 복은 아직 길고 멀었는지라. 어찌 회복이 없사오리까?"

한데, 또 한 사람이,

"그대 등은 알지 못하는도다. 하늘이 송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조웅을 명하였더니, 불쌍하도다 조웅이여! 일시가 극난하여 평일 미명에 서번 적의 간계에 걸려들어 죽을 듯하니

불쌍하도다. 조웅의 일도 우리와 같을지라. 정해진 나이를 못마치고 전쟁의 패한 혼이 될 듯하니 불쌍코 가련하다."

이러할 제 문 지키는 군사 급히 고하기를,

"송나라 문제 들어오시나이다."

하니, 여러 사람이 일시에 뜰로 내려와 영접하여 상좌한 후에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오늘날 만날 약속을 정하옵고 어찌 늦게 도착하시나이까?"

문제 왈,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하는 조웅이라. 오다가 한 곳을 보니 불측한 서번이 조웅을 잡으려고 이러저러하였거늘, 행여 그러할까 하여 시운일수를 통치 못하여 죽을 듯함에, 도사를 찾아가 구하라 하고 부탁하고 오노라"

하시니, 좌중이 외쳐 왈,

"우리는 분명 조웅이 죽으리라 하고 불쌍한 공문을 하였더니, 대운이 막히지 아니하였사오니 천수를 어찌 하오리까?"

원수가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각몽 (중략)

원수 꿈속의 일을 생각하니 저절로 마음이 비창하여 슬픔을 머금고 종일 행군할 동안에 염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날 함곡에 도달하니 해는 서쪽 산 위로 떨어지고 달은 동쪽 고개 위로 떠올랐는데, 무심한 잔나비는 달빛 아래에서 슬피 울고, 그윽한 두견성은 불여귀를 일삼았다. 갈 길은 험악한데 동쪽은 험한 산이고 서쪽은 깊은 골짜기여서 층층이 험한 산봉우리는 가슴을 찌르는 듯하고 야광은 희미하기만 했다.

선봉을 재촉하여 함곡으로 들어가는데 문득 바라보니 동편 작은 골짜기에 갈포로 만든 두건과 벼옷을 입은 한 노옹이 있어 푸른 나귀를 재촉하며 백우선으로 원수를 만류하기를 원수가 그 노옹을 바라보니 정신이 황홀하였다. 원수가 말을 머물게 하고 잠깐 기다리니 그 노옹이 묻기를,

"연주로부터 오십니까?"

원수가 답 왈,

"그러하오이다."

노옹이 왈,

"위국으로 가는 조 원수를 혹 보셨습니까? 보시면 바빠 알려 주소서."

하였다. 원수는 마음속으로 의심하고 한편으로 이상하게 여겨 왈

"내가 바로 조웅이거니와 무슨 일로 긴히 찾습니까?"

하니, 노옹이 크게 기뻐하며 왈, 내면심리

"나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라. 성품이 남과 달라 빼어난 산천과 명승지지를 즐겨 구경하고 두루 다녔는데, 오로봉에

입목

성격

1. 낮춤
2. 지시
표현

내면심리

길한 예언

불길한 장면 묘사

들어갔다가 **천명 도사**를 만나 수삼 일을 머물렀더니 출발할 때 한 서찰을 주며 왈, '그대에게 오늘 오시에 전하라' 하여 나귀를 바삐 몰아 진시에 도착하려고 했으나 피곤한 나귀 탓으로 **시간을 넘겨 버렸기에 행여 못 만날까 염려하였더니 이곳에서 만나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겠습니까?"**

내면심리

하며, 소매 속에서 한 통 편지를 내어 주고는 팔을 들어 하직하거늘 원수 다시 노옹을 바라보니 행색이 아득하였다. 마음속으로 신기하게 여겨 그 편지를 급히 떼어 보니 다른 말은 없고 '함곡에 들어가지 말고 성중으로 먼저 들어가서 포를 한 번 쏘라'고만 쓰여 있었다. 원수가 편지를 다 보고는 대경실색하여 좌장군 위홍창을 불러 왈,

도움받는

"장졸을 함곡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장면

하니, 홍창이 급히 아뢰길,

"선봉이 이미 함곡에 들어갔습니다."

하거늘 원수가 크게 놀라며 왈,

"너는 급히 들어가 선봉을 데려오라. 데려올 때 조금도 어수선하게 하지 말고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한들씩 숨어 나오되 빨리 데리고 나오너라."

홍창이 원수의 명을 듣고는 급히 함곡에 들어가서 전하니 선봉이 군사를 물려 돌아왔다. 원수가 편지를 얻어 기뻐하며 진을 쳤다.

-작자 미상, 「조옹전」-

지문 정리를 하면

1. [A]입몽 장면으로 시작해 (중략) 위의 각몽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2. 앞 부분 줄거리에서 연주(배경)에 도달한 뒤 [A]입몽 장면이 펼쳐지고, (중략) 후에는 함곡(배경)에 도달한 뒤 [B] 불길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3.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서번적의 매복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번적의 매복 때문에 서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4. 주요 장면은 6개의 장면입니다.

① 입몽장면 ② 큰 잔치 장면 ③ 불길한 예언, 길한 예언 각몽 후

④ 불길한 장면 ⑤ 노옹의 도움을 받는 장면 ⑥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

2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 문제는 서번 적의 간계에 빠져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서번적의 매복.

조옹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장면이지, 송 문제가 어려움을 겪는 장면은 아닙니다. 오히려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 ② 원수는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도중에 사관에서 쉬려고 군마를 멈추었다.

사건 전개에 필요했던 배경 함곡에서 연주로 가는 것이죠.

- ③ 노옹은 자신의 계획보다 늦게 도착했음에도 조옹을 만나게 되어 기뻐했다.

주요 6 장면 중 하나, 노옹이 조옹을 돕는 장면 정답!

- ④ 위홍창은 역적에게 망한 송나라를 구하고자 선봉을 이끌고 함곡에 들어갔다.

- ⑤ 황금관을 쓴 노인은 모임의 상석에 앉아 있다가 뜰로 내려와 여러 사람을 맞이했다.

주요 6장면을 파악했다면 오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입몽 장면, [B]서번적이 매복하고 있는 불길한 장면입니다. 따라서...

- ① [A]에서는 공간의 광활함을 통해 인물의 진취적인 기상이 드러나고 있다.

입몽인데 진취? ㄴㄴ

- ② [B]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통해 인물의 낙관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불길한데 낙관? ㄴㄴ

- ③ [A]에서는 낭만적인 사건에 의한 환상성이, [B]에서는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 의한 현실성이 부각되고 있다.

입몽...이 낭만? 그리고 꿈에서 도움을 받는데 현실성??

- ④ [A]에서는 공간적 변화에서 비롯되는 긴장감이, [B]에서는 계절적 상황에서 비롯되는 쓸쓸함이 강조되고 있다.

입몽이 긴장? 계절적 상황이 아니라 서번적 매복!

- ⑤ [A]에서는 비현실적 공간에서 느껴지는 신비로움이, [B]에서는 현실 공간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이 드러나고 있다.

정답!

25. 큰 잔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하며 소회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참석자들은 특정 인물에 대한 염려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참석자들은 대화를 통해 국가의 흥망성쇠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참석자들은 소회를 다한 후 여러 행위를 통해 각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많은 참석자와 가득한 음식 차림을 통해 풍성한 잔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용전」에서 꿈은 초월적 세계의 뜻을 주인공에게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꿈속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자신에게 부여된 천명과 현실 세계에서의 위기, 자신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 등을 알게 된다. 이러한 초월적 세계의 뜻에 대해 주인공은 확신하지 못하지만, 전달자와 구체적 증거물을 통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게 된다. 주인공은 이와 같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확인하고 실천하여 영웅적 면모를 드러낸다.

- ① 꿈속에서 송 문제가 조용을 구하려 하는 것은, 조용에 대한 초월적 세계의 비호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조용이 행군 중에 슬퍼하는 것은, 전쟁에 패한 혼이 될 것이라는 꿈속의 말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것이겠군.
- ③ 꿈속에서 송나라 왕실을 회복할 신호로 조용이 거론되는 것은, 조용에게 주어진 천명을 알게 하려는 것이겠군.
- ④ 조용이 노옹을 통해 전달 받은 편지의 지시에 따른 것은, 조용이 꿈속 경험에서 알게 된 초월적 세계의 뜻을 신뢰한 것이겠군.
- ⑤ 노옹이 천명 도사의 부탁을 받아 편지를 전하고 떠나는 것은, 노옹이 초월적 세계의 뜻을 조용에게 전달하는 사람임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하향식 독서 모형 (배경지식 활용)으로 보겠습니다.

꿈속이 불길했고, 그것을 믿으니, 슬퍼하는 것이죠.

정답 2번!

정리합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평가원이 원하는 형태의 정보처리를 한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평가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가, 그대로 선지, 정답선지로 이어진다.

따라서, 평가원이 원하는 형태의 정보처리 규격에 맞게 정보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리합니다. 다음의 정보처리 규격.

잘 생각하고 그대로 적용하는 흐름을 봐 주세요!

2014 개정수능 이후,
<2017~ 확립된, 新수능국어의 특징>

서사 장르,
 평가원의 정보처리 ‘규격’

1. 주제 : 서사, 줄거리
2. 사건, 갈등, 장면, (+ 분위기)
3. 인물 = 성격 (+ 내면심리)
4. 특이한 소재, 배경, 전개방식(개념)

***첫부분 인물, 사건, 배경 세팅

*인물이 많으면 => 주인공 + 주인공 서사 집중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곳은 서방 세계(西方世界)라, 속객이 어찌 오시니가?”

성의가 공손히 답례하고 가로되,

“나는 안평국 사람이러니 천성금불 보탑존자를 뵈러 왔사오니 어디 계시니잇가?”

화상이 왈,

“보탑존자는 금강천불대사라. 인간 육신으로 이곳을 들어 왔으니 정성을 가히 알지라. 그대 정성을 신령이 감동함이니 마음이 부정(不淨)하면 대사를 보지 못할지라. 물러가 칠일 재계(齋戒) 후에 대사를 보소서.”

하거늘 성의가 슬프게 눈물 흘리며 재배 왈,

“소자 무변광해를 주유하와 천신만고하여 왔삽거늘 어찌 물러가 칠 일을 머물리잇가? 바라건대 스님은 살피사 일각이 삼추 같사온 성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사부의 어엿비 여기심을 바라나이다.”

하니 화상이 왈,

“이곳을 한 번 보면 삼재팔난이 소멸되나니 귀객의 효성이 창천에 사무치느니라. 작일에 존자 분부하시되, ‘명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뢰라.’ 하시더니, 생각건대 그대를 이르심이라.”

하고,

“잠깐 머무소서.”

하며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와 청하거늘 성의 따라 들어가니 칠층 전각의 일위 존자 머리에 누른 송라를 쓰고 칠건 가사를 메고 좌수에 금강경을 쥐고 우수로 백팔염주를 두르며 경문을 외우니, 좌편의 오백 나한이며 우편의 칠백 중들이 합송하니 송경 소리 반공에 사무치느니라. 성의 칠보대 아래에서 재배하는데, 존자 왈,

“내 일찍 수도하여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보는지라. 이제 네 효도하여 위친지성(爲親至誠)이 지극하여 극락서역이 창해 누만 리거늘 부모에게 효도함에 위친지성으로 길을 삼아 금일로 올 줄을 알았더니 과연 오도다.”

하며 환약 일봉을 주며 왈,

“이 약이 일영주니 바빠 돌아가 모환을 구하라. 너는 [A] 본디 하계(下界) 사람이 아니라. 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됨에 곤액(困厄)*이 있으나 필경에 원환을 풀 날이 있으리라.”

(중략 줄거리) 일영주를 구해 돌아오던 중 성의는, 왕위를 이어받는 데 위협을 느낀 형 항의에게 공격을 당해 일영주를 빼앗기고 눈이 먼다.

각설, 이때 성의 한 조각 판자를 의지하였으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두 눈이 어두웠으니 천지일월성신이며 만물을 어찌 알리오. 동서남북을 어찌 분별하며 흑백장단을 어찌 알리오. 다만 바람이 차면 밤인 줄 알고 일기가 따스한 즉 낮인 줄 짐작하나 만경창과에 금수 소리도 없는지라.

삼일 삼야 만에 판자 조각이 다다른 곳이 있는지라. 놀래어 손으로 어루만지니 큰 바위라. 기어 올라가 정신을 수습하여 바위를 의지하고 앉아 탄식 왈,

“사형(舍兄)*이 어찌 이다지 불량하여 무죄한 인명을

[B] 창과 중에 원혼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지경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는 부모가 곁에 계신들 얼굴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오. 그러나 모친 환우가 어떠하신지, 일영주를 썼는지 알지 못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며, 인자하신 우리 모친이 속절없이 황천에 돌아가시겠도다.”

하고 슬피 통곡하니 창천이 욱열하고 일월이 무광한지라.

사고무인(四顧無人) 적막한데 심이 세 적공자가 불량한 사형에게 두 눈을 상하고서 일시에 맹인이 되어 외로운 암석 상에 홀로 앉아 자탄하니 그 아니 처량한가. 적적무인(寂寂無人) 야삼경의 추풍은 삼삼하여 원객의 수심을 자아내고, 강수동류원야성(江水東流猿夜聲)의 잔나비 슬피 울고, 유의한 두견성과 창과만경의 백구들은 비거비래(飛去飛來) 소리 질러 자탄으로 겨우 든 잠을 놀라 깨니 침침원한 무궁리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마치 아니하더니 문득 ㉠ 찰아한 소리 들리거늘 귀를 기울여 들으며 헤아리되, ‘이는 분명한 대 소리로다. 이 같은 대해 중에 어찌 대밭이 있는고.’ 하며 ‘이는 반드시 축나라 땅이로다.’ 하고 소리를 쫓아 내려가고저 하더니, 문득 ㉡ 오작(烏鵲)이 우지지며 손에 자연 짙이는 것이 있거늘 이는 곧 실과라. 먹으니 배 부른지라 정신이 상쾌하거늘, 오작에게 사례하고 인하여 바위에 내려 죽림을 찾아가니 울밀한 죽림이라. 들으니 그중에 ㉢ 한 대가 금풍을 따라 스스로 응하여 우느니라. 여러 대를 더듬어 우는 대를 찾아 잡고 주머니에서 칼을 내 대를 베어 단저*를 만들어서 한 곡조를 부니 ㉣ 소리 처량하여 산천 초목이 다 우짖는 듯하더라.

차시에 성의 오작에게 밥을 부치고 단저로 벼를 삼아 심회를 털며 일분도 그 형을 원망치 아니하고, 주야에 부모를 생각하니 그 천성대효(天性大孝)를 천지신명이 어찌 돕지 아니하리오.

각설, 이때 중국에 호마령이라 하는 재상이 있으니 벼슬이 승상에 오른지라. 황명을 받자와 남일국에 사신 갔다가 삼삭 만에 돌아오더니 이곳에 이르러 일행을 쉬더니 청풍은 서래하고 수파는 고요한데, ㉤ 처량한 피리 소리 풍편에 들리거늘 호 승상이 헤오되, ‘이곳은 무인지경(無人之境)이라. 분명 선동(仙童)이 옥저를 불어 속객을 희롱하는도다.’ 하고 시동(侍童)을 명하여,

“피리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라.”

하시되 시동 승명하고 피리 소리를 따라 한곳에 이르니 한 동자 죽림 암상에 비껴 앉아 단저를 처량하게 불거늘 시동이 왈,

“그대 신동인가? 선동인가?”

하니 성의 놀라더라.

-작자 미상, 「적성의전」-

*혐의:꺼리고 미워함.

*곤액: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이 겹친 불운.

*사형:자기의 형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단저:짧은 피리.

3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상은 인간 육신으로 서방 세계에 온 성의를 의심하여 그의 능력을 시험하였다.
- ② 성의는 죽어서라도 대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화상에게 전했다.
- ③ 보탑존자는 성의가 찾아올 것이라고 화상에게 미리 알려 두었다.
- ④ 호 승상은 남일국에 사신으로 가는 길에 선동에게 회통당하고 일행과 함께 자리를 떴다.
- ⑤ 시동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혼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여 호 승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36. [A]를 바탕으로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모환을 구하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A]에서 존자는 성의가 ‘본디 하계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가 황천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됴에’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형과의 전세 악연을 이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곤액이 있’다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이제 부모의 곁에 있게 되었지만 그 얼굴을 알지도 못하게 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필경에 원한을 풀 날이 있으리’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탄식을 통해 자연물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형에 대한 통환을 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에 드러나는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류하던 성의가 자신이 있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정보다.
- ② ㉡:먹을 것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성의에게 알려 주는 신호다.
- ③ ㉢:성의가 피리의 재료로 쓸 대나무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 ④ ㉣:성의가 자신의 피리 부는 재능이 탁월함을 천상계에 알리는 신호다.
- ⑤ ㉤:고립되어 있던 성의가 타인과 만나는 계기가 된다.

3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불교 설화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 「적성의전」은 소설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유교적 덕목인 효행이 강조된다. 또한 대결 구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초월적 존재 혹은 천상계가 설정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특히 형제 갈등이라는 가족 내의 문제를 다루면서 권선징악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성의가 원래 하계 사람이 아니라는 존자의 말로 보아 천상계가 설정된 이 소설의 특징을 알 수 있군.
- ② 금강경, 백팔염주, 보탑존자 등의 불교적 소재를 취한 것으로 보아 불교 설화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볼 수 있는 존자가 부정한 성의를 만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권선징악적 성격을 알 수 있군.
- ④ 형에 의해 두 눈이 멀고 홀로 암석 위에서 자탄하고 있는 성의의 모습으로 보아 인물 간의 갈등이 가족 내의 문제임을 알 수 있군.
- ⑤ 성의가 어머니를 위한 지극한 효성으로 창해 누만 리 떨어진 곳까지 일영주를 얻기 위해 갔다는 것으로 보아 유교적 덕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풀이 시간: / 난이도 점수: / 수업 후 난이도 점수:

2018학년도 6월 평가원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경

“이곳은 서방 세계(西方世界)라, 속객이 어찌 오시니가?”

성의가 공손히 답례하고 가로되, 성의 성격

나는 안평국 사람이러니 천성금불 보탑존자를 뵈러 왔사오니 어디 계시니잇가? 왕자인데... 신분을 안 밝히는 겸손함

화상에 왈,

보탑존자는 금강천불대사라. 인간 육신으로 이곳을 들어왔으니 정성을 가히 알지라. 그대 정성을 신령이 감동함이니 마음이 부정(不淨)하면 대사를 보지 못할지라. 물러가 칠 일 재계(齋戒) 후에 대사를 보소서.”

하거늘 성의가 슬프게 눈물 흘리며 재배 왈,

“소자 무변광해를 주유하와 천신만고하여 왔삽거늘 어찌 물러가 칠 일을 머물리잇가? 바라건대 스님은 살피사 일각이 삼추 같사온 성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차라리 이곳에서 죽어 사부의 어엿비 여기심을 바라나이다.”

하니 화상이 왈,

성의 성격 -> 하늘 감동

“이곳을 한 번 보면 삼재팔난이 소멸되나니 귀객의 효행이 창천에 사무치느니라. 작일에 존자분부하시되, 명일 유시에 안평국 왕자 내게 올 것이니 오는 즉시 아뢰라. 하시더니, 생각건대 그대를 이르심이라.”

하고,

“잠깐 머무소서.”

하며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와 청하거늘 성의 따라 들어가니 칠층 전각의 일위 존자 머리에 누런 송라를 쓰고 칠건 가사를 메고 좌수에 금강경을 쥐고 우수로 백팔염주를 두르며 경문을 외우니, 좌편의 오백 나한이며 우편의 칠백 중들이 합송하니 송경 소리 반공에 사무치느니라. 성의 칠보대 아래에서 재배하는데, 존자 왈,

“내 일찍 수도하여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보는지라. 이제 네 효도하여 위친지성(爲親至誠)이 지극하여 극락서역이 창해 두만 리거늘 부모에게 효도함에 위친지성으로 길을 삼아 금일로 올 줄을 알았더니 과연 오도다.”

하며 환약 일봉을 주며 성의 성격. 인성-> 하늘 감동

“이 약이 일영주니 가빠 돌아가 모환을 구하라. 너는 [N] 본디 하계(下界) 사람이 아니라. 진세에 묘일성신과 혐의 있더니, 금세에 한계 됨에 곤액(困厄)이 있으나 필경에 원환을 풀 날이 있으리라.”

(중략 줄거리) 일영주를 구해 돌아오던 중 성의는, 왕위를 이어받는 데 위협을 느낀 형 항의에게 공격을 당해 일영주를 빼앗기고 눈이 먼다.

각설, 이때 성의 한 조각 판자를 의지하였으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두 눈이 어두웠으니 천지일월성신이며 만물을 어찌 알리오. 동서남북을 어찌 분별하며 흑백장단을 어찌 알리오. 다만 바람이 차면 밤인 줄 알고 일기가 따스한 즉 낮인 줄 짐작하나 만경창과에 금수 소리도 없는지라.

삼일 삼야 만에 판자 조각이 다다른 곳이 있는지라. 골래어 손으로 어루만지니 큰 바위라. 기어 올라가 정신을 수습하여 바위를 의지하고 앉아 탄식 왈,

“사형(舍兄)*이 어찌 이다지 불량하여 무죄한 인명을

창과 중에 원혼이 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이 지경이 되게 하였으니 이제는 부모가 곁에 계신들 얼굴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통한치 아니하리오. 그러나 모친 환우가 어머하신지, 일영주를 썼는지 알지 못하니 어찌 원통치 아니하며, 인지하신 우리 모친이 속절없이 황천에 돌아가시겠도다.”

하고 슬피 통곡하니 창천이 옥열하고 일월이 무광한지라.

사고무인(四顧無人) 적막한데 심이 세 적공자가 불량한 사형에게 두 눈을 상하고서 일시에 맹인이 되어 외로운 암석 상에 홀로 앉아 자탄하니 그 아니 처량한가. 적적무인(寂寂無人) 야삼경의 추풍은 삼삼하여 원객의 수심을 자아내고, 강수동류원야성(江水東流猿夜聲)의 잔나비 슬피 울고, 유의한 두견성과 창과만경의 백구들은 비거비래(飛去飛來) 소리 질러 자탄으로 겨우 든 잠을 놀라 깨니 침침원한 무궁리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을 마치 아니하더니 문득 ㉠찰아한 소리 들리거늘 귀를 기울여 들으며 헤아리되, ‘이는 분명한 대 소리로다. 이 같은 대해 중에 어찌 대밭이 있는고.’ 하며 ‘이는 반드시 축나라 땅이로다.’ 하고 소리를 쫓아 내려가고저 하더니, 문득 ㉡오작(烏鵲)이 우지지며 손에 자연 짙이는 것이 있거늘 이는 곧 실과라. 먹으니 배 부른지라 정신이 상쾌하거늘, 오작에게 사례하고 인하여 바위에 성의 성격 내려 죽림을 찾아가니 울밀한 죽림이라. 들으니 그중에 ㉢한 대가 금풍을 따라 스스로 응하여 우느니라. 여러 대를 더듬어 우는 대를 찾아 잡고 주머니에서 칼을 내 대를 베어 단저*를 만들어서 한 곡조를 부니 ㉣소리 처량하여 산천 초목이 다 우짖는 듯하더라.

차시에 성의 오작에게 밥을 부치고 단저로 벼를 삼아 심회를 털며 일분도 그 형을 원망치 아니하고, 주야에 부모를 생각하니 그 천성대효(天性大孝)를 천지신명이 어찌 돕지 아니하리오.

각설, 이때 중국에 호마령이라 하는 재상이 있으니 벼슬이 승상에 오른지라. 황명을 받자와 남일국에 사신 갔다가 삼삭 만에 돌아오더니 이곳에 이르러 일행을 쉬더니 청풍은 서래하고 수파는 고요한데, ㉤처량한 피리 소리 풍편에 들리거늘 호 승상이 헤오되, ‘이곳은 무인지경(無人之境)이라. 분명 선동(仙童)이 옥저를 불어 속객을 희롱하는도다.’ 하고 시동(侍童)을 명하여,

[B]

[문득]

[문득]

[문득]

[문득]

[문득]

[문득]

[문득]

[문득]

거절

부탁

승낙 장면

장면전환

요약적 제시 정보가치 ↑ 3번 반복

성의 성격

성의 성격

하늘 감동

하늘 감동

“피리 소리 나는 곳을 찾아보라.”

하시되 시동 승명하고 피리 소리를 따라 한곳에 이르니 한 동자 죽림 암상에 비겨 앉아 단저를 처량하게 불거늘 시동이 왈,

“그대 신동인가? 선동인가?”

하니 성의 놀라더라.

-작자 미상, 「적성의전」-

*협의:끼리고 미워함.

*곤액: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이 겹친 불운.

*사형:자기의 형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

*단저:짧은 피리.

하향식 독서 모형 (배경 지식 활용)으로 보겠습니다.

장면 이해

35.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상은 인간 육신으로 서방 세계에 온 성의를 의심하여 그의 능력을 시험하였다.
- ② 성의는 죽어서라도 대사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화상에게 전했다.
- ③ 보탑존자는 성의가 찾아올 것이라고 화상에게 미리 알려 두었다.
- ④ 호 승상은 남일국에 사신으로 가는 길에 선동에게 회통당하고 일행과 함께 자리를 떴다.
- ⑤ 시동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혼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여 호 승상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주제 줄거리

X

36. [A]를 바탕으로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모환을 구하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A]에서 존자는 성의가 '분디 하게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가 황천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A]에서 존자는 성의에게 '전세에 묘일성신과 협의 있더니, 금세에 형제 됴에'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형과의 전세 악연을 이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곤액이 있'다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이제 부모의 곁에 있게 되었지만 그 얼굴을 알지도 못하게 된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A]에서 존자가 성의에게 '필경에 원환을 풀 날이 있으리

라'고 했는데, [B]를 보면 성의는 탄식을 통해 자연물의 공감을 얻음으로써 형에 대한 통환을 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7. ㉠~㉣에 드러나는 소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표류하던 성의가 자신이 있는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정보다.
 - ② ㉡:먹을 것이 주위에 있다는 것을 성의에게 알려 주는 신호다.
 - ③ ㉢:성의가 피리의 재료로 쓸 대나무를 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 ④ ㉣:성의가 자신의 피리 부는 재능이 탁월함을 천상계에 알리는 신호다.
 - ⑤ ㉤:고립되어 있던 성의가 타인과 만나는 계기가 된다.

성격, 인성

38.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불교 설화를 근원으로 하고 있는 「적성의전」은 소설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유교적 덕목인 효행이 강조된다. 또한 대결 구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초월적 존재 혹은 천상계가 설정되는 특징을 보여 준다. 특히 형제 갈등이라는 가족 내의 문제를 다루면서 권선징악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X 성격, 인성

- ① 성의가 원래 하계 사람이 아니라는 존자의 말로 보아 천상계가 설정된 이 소설의 특징을 알 수 있군.
- ② 금강경, 백팔염주, 보탑존자 등의 불교적 소재를 취한 것으로 보아 불교 설화의 흔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천하제국 중생의 선악을 볼 수 있는 존자가 부정한 성의를 만나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권선징악적 성격을 알 수 있군.
- ④ 형에 의해 두 눈이 멀고 홀로 암석 위에서 자탄하고 있는 성의의 모습으로 보아 인물 간의 갈등이 가족 내의 문제임을 알 수 있군.
- ⑤ 성의가 어머니를 위한 지극한 효성으로 창해 누만 리 떨어진 곳까지 일영주를 얻기 위해 갔다는 것으로 보아 유교적 덕목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